

선거방송도 TV 밖으로! 세상 속으로!!

: SBS 총선방송 2016 국민의 선택

SBS는 지난 2015년 창사 25주년을 맞았다. 25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SBS는 더 이상 방송사가 아닌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서 TV 밖으로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어서 준비가 시작된 총선방송 2016년 국민의 선택, 26살 청년은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 안정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선거 방송 개요

SBS는 고유의 선거용 그래픽 송출 시스템인 VIPON(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VIPON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실시간 선거 관련 정보(ex. 지역 투표율, 예측 조사 결과, 후보별 득표율 등)를 그래픽 화면에 표출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선거방송은 곧 “개표방송”이었다. 당연히 선거방송의 목표도 출구 조사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개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었다. VIPON 또한 이 목표에 충실하게 개발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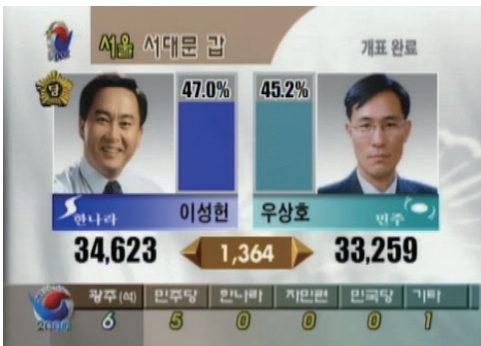


그림 1. 총선 2000 국민의 선택 Normal 및 하단화면

물론 정확한 예측과 빠르고 정확한 전달은 현재에도 지켜져야 할 선거방송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HD 방송의 확산, 그래픽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시청자 눈높이 상승 등으로 인해 선거방송이 단순 보도물 수준을 넘어서 기획, 정보, 예술, 기술이 집약된 재미와 감동의 종합 콘텐츠로 변모해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신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2012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방송사별로 차별화된 콘텐츠(ex. SBS의 달리기 메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림 2,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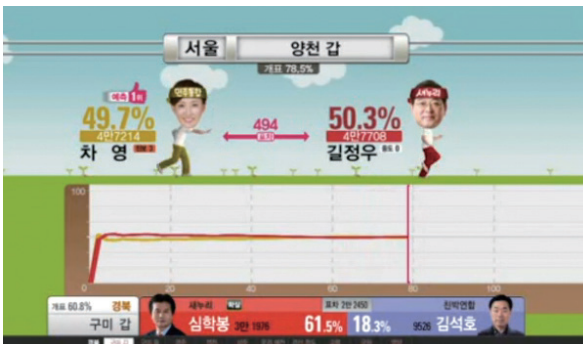


그림 2. SBS 달리기 메뉴(총선 2012 국민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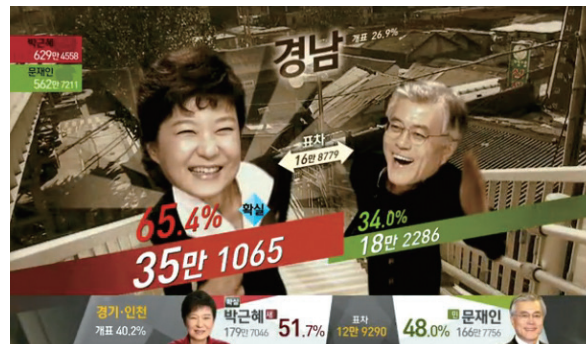


그림 3. SBS 달리기 메뉴(대선 2012 국민의 선택)

2016 국민의 선택 : SBS의 새로운 도전

VIPON 기본 송출 장비 교체

“기본 송출 장비”는 SBS의 VIPON 시스템 내에서 터치스크린 그래픽용 Advanced 그래픽 송출 시스템, 증강/가상 현실 그래픽 송출 시스템 등 특수목적에 활용되는 송출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그래픽 송출을 담당하게 되는 송출 장비를 말한다. 흔히 노말(상단)/하단 혹은 노말(상단) 송출 장비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노말(상단)은 화면 전체에 그래픽과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며[그림 4] 하단은 화면의 일부분(보통 화면 아래쪽)에 그래픽과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림 5]



그림 4. VIPON 노말(상단) 화면



그림 5. VIPON 하단 화면(노란색 박스 안)

앞장의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노말과 하단 화면은 선거방송 그래픽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이를 송출하는 “기본 송출 장비”의 그래픽 송출 기능 및 성능은 전체 선거방송의 수준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노말 및 하단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래픽과 데이터를 연동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 제어 프로그램은 해당 “기본 송출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DK를 활용하게 되는데, 결국 시스템 자체의 기능 및 성능 못지않게 해당 SDK의 기능과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BS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끊임없이 SDK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개발의 비효율성 문제 및 성능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었던 기존 송출 장비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산 및 외산 송출 시스템 후보군을 선정하고 약 한 달간 시스템 성능 및 개발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성능 및 기능 검증 테스트를 실시한 후 국산 장비를 도입했다. 사실 선거방송 같은 단기 이벤트를 앞두고 기본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해 본 사람들”은 안다. 일단, SDK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왔던 개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또한, 비록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검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선거방송은 방송에 적용되는 순간 그 이후 발견되는 문제는 곧 방송사고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해결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그동안 장비 교체 등 큰 결정에 있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화질 그래픽 및 동영상 소재의 효율적 처리 및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 교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여 과감히 교체하였고, 그 결과로 메뉴 생산 효율을 1.5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수 효과 개발

특수 오브젝트 제어 라이브러리 개발

이번 SBS 선거 아이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흔히 “판”이라고 하는 데이터 표출 오브젝트의 정형성 탈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단순히 화면에 누가 봐도 확연히 구분되는 “판”을 “띄우고” 거기에 정보를 표출해주기보다는 바위, 산, 물결, 책 등 일상의 물체들을 활용해서 마치 거기에 데이터가 “써”지거나, “새겨”지도록 메뉴를 개발했다. [그림 6,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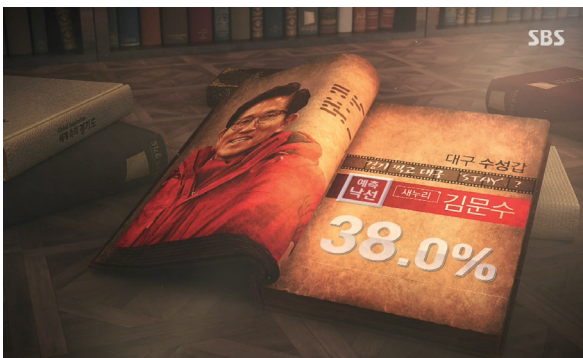


그림 6. 책을 활용한 데이터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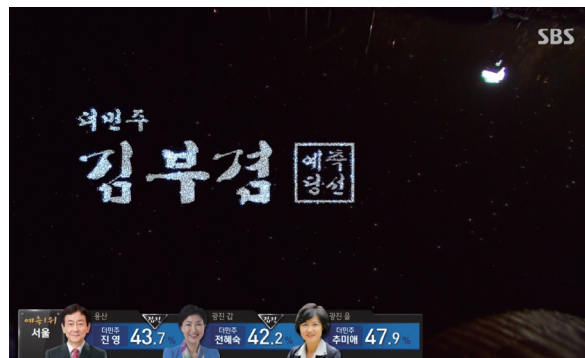


그림 7. 물위에 새긴 데이터

또한, 기존 달리기 메뉴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마치 후보가 실제로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실사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다. [그림 8 참조]



그림 8. 실사를 활용한 달리기 메뉴(충선 마라톤)

드론, 헬리캠 등의 장비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화면 효과 개발(카메라 트랙킹)

앞에서 이번 선거에서 기본 송출 장비가 교체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송출 장비 신규도입에 의해서 가능해진 여러 가지 기능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기능이다. 카메라 트랙킹(Camera Tracking)을 통해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표현하여 마치 데이터가 마치 영상에 붙어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선보였다. [그림 9 참조]



그림 9. 카메라 트랙킹(절대 배지)

다수의 영상을 활용한 화면 구성 효과 개발

이번 선거는 특히 동영상 기반 VIPON을 많이 선보였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하여 동적으로 영상을 교체하는 기술이 적용된 메뉴들이 선보였다.[그림 10 참조] 아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표 결과에 따라 그 뒤에 오는 영상들이 바뀌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림 10. 동적 영상 교체 기법 메뉴(총선삼국지)

기타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선보였으며, 터치스크린 간 연동 기술을 활용한 더블터치 메뉴[그림 11 참조], 실시간 데이터 연동된 미디어월 메뉴[그림 12 참조]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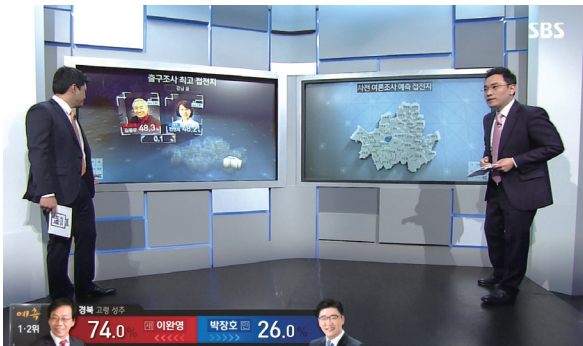


그림 11. 스크린간 연동 기술을 활용한 더블 터치 메뉴



그림 12. 실시간 데이터 연동형 미디어 월 메뉴

플랫폼 확대를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SBS는 지난 2012년 선거방송에서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투표 인증샷 메뉴를 선보여 각광을 받았으며, 현재는 모든 방송사의 공통된 메뉴로서 자리잡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기에 더해, “투표” 이행시 메뉴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기존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공동으로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내용뿐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시청자 참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13, 14 참조]



그림 13. 투표 인증샷 및 이행시 메뉴(하단)



그림 14. 투표 이행시 노말 메뉴

선거방송 최초 Live 웹방송 송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SBS는 방송사로서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서 TV 밖에서의 선거방송, 관점이 있는 선거방송을 위해 카카오社와 MOU를 맺고 라이브 웹방송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내 부문별 Delay 및 채널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중계차 등 내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방송을 카카오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15, 16 참조]



그림 15. SBS 라이브 웹방송 “여야본색”(여본)



그림 16. SBS 라이브 웹방송 “여야본색”(야본)

결언

현재의 선거방송은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보도물이 아니라 선거방송기획팀의 주도로 단 하루의 생방송을 위해 몇 달 간 기획, 디자인, 개발 작업을 수행한 후,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무대세트, 카메라, 조명, 음악 및 음향, 중계, IT기술, 인터넷 및 모바일, 제작, 송출, 편성, 홍보 등 방송사 내의 거의 모든 부서의 인력이 총동원되는 종합 제작물이 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 현존하는 모든 첨단 방송기술들이 펼쳐지는 경연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SBS는 늘 선거방송에서 참신하고 파격적인 시도로 아이디어에서, 그래픽에서, 그리고 기술에서 트렌드를 주도해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매번 선거철이면 SBS가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로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자부한다.

다음번 선거방송에서도 SBS는 시청자들 아니 모든 콘텐츠 소비자들로부터 다시 한 번 “약 빨고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일류방송, 무결점 방송을 선보일 것이다. 